



방송통신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1.11.23일자 신고 건에 대한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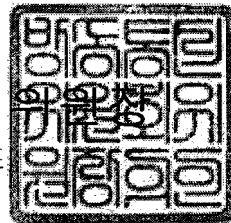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출한 신고서(2011.11.23)
「역무 제공 의무위반 등」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귀 연합(센터)에서 제출한 「역무 제공 의무 위반 등」 신고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립니다.

붙임 : 2011.11.23일자 경실련 신고건에 대한 검토의견 1부. 끝.

방송통신위원회

수신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주무관 신현구 행정사무관 김준모 시장조사과장 전영만 전결 12/23

협조자

시행 시장조사과-1085 (2011. 12. 23.) 접수
우 110-777 서울종로구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11층) / www.kcc.go.kr
전화 02-750-2643 전송 02-750-2649 / dandy09@kcc.go.kr / 비공개(5)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의견

□ 양 사의 이용약관상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해외 주요국가들의 경우 경쟁상황 등에 따라 mVoIP 차단을 금지(미국)하거나, 완전 차단하더라도 규제를 하지 않는(영국) 등 국가별 정책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mVoIP 서비스를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 제공하거나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프랑스 등)가 많습니다.

□ DAUM의 마이피플 등 mVoIP의 경우 최근 망 중립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공 서비스(음성전화), 제공사업자 지위(부가사업자) 등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점, 현 시점에서는 mVoIP 서비스의 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가 어렵고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가까운 미래의 서비스 진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성급한 판단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자 편익 제고와 지속적인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를 위해 mVoIP 서비스가 네트워크 및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모니터링,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 진보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이 경제·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핵심적 기반요소로 등장하고,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과 인터넷접속서비스시장의 포화 등 통신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지속적인 정보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ICT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망 중립성 포럼, 공공정책자문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mVoIP를 포함한 망 중립성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 해외 주요국 망 중립성 정책 추진 동향

- (미국)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을 제정('10.12월) 하였으며, '11.11.20부터 발효
- (EU) EC는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아직 정책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예정
 - (영국) '11.11.24. 망 중립성에 대한 오프콤의 입장(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을 발표
 - 트래픽 관리, 트래픽 차단·차별 등 망 중립성 주요 이슈에 대해 시장의 힘에 맡기고 규제를 유보(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필요 시 규제 여부를 판단)
- (싱가포르, 프랑스, 노르웨이 등)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콘텐츠 차단·차별 금지 등 기본원칙을 가이드라인 또는 제안서 형태로 발표

아울러, 향후 구체화될 mVoIP 관련 정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사·제재 등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2012년에 망 중립성 논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한편, 마이피플과 해외 사업자 서비스간 이용자 차별과 관련, 실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차단되는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 모두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SKT 가입자가 마이피플을 이용하는 경우 신호음만 갈뿐 통화 연결이 불가능하였고,

KT 가입자가 마이피플을 이용하거나 SKT와 KT 가입자가 국내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통화연결은 되지만 정상 통화는 불가능*하였습니다.

* 통화연결은 되나 “틱-틱”하는 기계음만 들리거나(SKT), 연결후 잠시 통화 가능하나 10여초 후 기계음 또는 무음으로 변화(KT)

< 참고 >

주요 경과 및 서비스 현황

□ 주요 경과

- '11. 12. 16.(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차 회의
 - 이통3사 mVoIP 제공 현황 및 서비스간 트래픽 차별 여부에 관한 사항
 - 참석자 : 방통위 시장조사과·통신경쟁정책과 담당 및 이통3사 관계자
- '11. 12. 20.(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2차 회의
 - 이통3사 mVoIP 차단 현황 비교 시연
 - 참석자 : 방통위 시장조사과·통신경쟁정책과 담당 및 이통3사 관계자
- '11. 12. 22.(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차 회의
 - 서비스간 차별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참석자 : 방통위 시장조사과 및 Daum 관계자

□ mVoIP 서비스 현황

- SKT 및 KT는 스마트폰의 54,000원(LTE는 5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SKT는 '10. 8. 13.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및 mVoIP 허용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방통위로부터 인가받았으며, KT는 '10. 12. 1. i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

< 요금제별 데이터 허용량 및 mVoIP 허용량 >

SKT	3G요금제	올인원 54 (54,000원)	올인원 64 (64,000원)	올인원79 (79,000원)	올인원94 (94,000원)
	mVoIP 허용량	200MB	300MB	500MB	700MB
	LTE요금제	LTE52 (52,000)	LTE62 (62,000)	LTE72 (72,000)	LTE85 (85,000)
	mVoIP 허용량	180MB	250MB	350MB	550MB
K T	3G요금제	1밸류 (54,000원)	1미디어 (64,000원)	1스페셜 (78,000원)	1프리미엄 (94,000원)
	mVoIP 허용량	750MB	1,000MB	1,500MB	3,000MB

※ 자료 : 각 사 이용약관